

광주 칼국수·전남 김밥값 상승률 최고

올해 지역서 가장 많이 오른 외식 메뉴...8개 중 6개 올라 개인서비스요금도 3% ↑ ...환율 영향 내년도 오름세 전망

올해 지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외식 메뉴 중 서민들이 즐겨 찾는 칼국수와 김밥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1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11월 소비자 선호 8개 외식 메뉴 중 광주 기준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칼국수(7.31%)였다. 같은 기간 비빔밥은 9천900원에서 1만500원으로 6.06%, 김밥은 3천160원에서 3천340원으로 5.69% 올랐다. 그 뒤를 이어 김치찌개(7천800원→8천200원) 5.12%, 냉면(9천600원→9천900원) 3.12% 등 순이었다. 전남의 올해 1-11월 소비자 선호 8개 외식 메뉴 중 김밥이 6.4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비빔밥은 8천611원에서 9천569원으로 5.16%, 냉면은 8천778원에서 9천222원으로 5.05% 올랐다. 광주·전남의 8개 외식 메뉴 중 자장면과 삼계탕을 제외한 6개 품목이 모두 올랐다. 이렇듯 전반적인 고물가 현상 속에 외식 물가도 올해 내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상승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불안해진 것도 이러한 전망이나

는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다.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각종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시차를 두고 외식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 중동 전쟁과 미국 대선 등의 영향으로 강달러 현상이 지속하면서 수입 물가는 이미 지난 10월(2.1%↑)과 지난달(1.1%↑)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이달 들어선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쳐 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외식 물가 외에도 올해 광주·전남의 세탁, 숙박(여관), 이·미용, 목욕 등 주요 5개 개인서비스요금도 올라 3%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주 개인서비스요금 업종별로 보면 숙박(3만9천원→4만2천원) 7.69%, 세탁(7천300원→7천500원) 2.73%, 목욕(7천600원→7천800원) 2.63% 등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5개 개인서비스

요금의 평균 상승률은 2.90%였다. 전남의 경우는 세탁 요금이 지난 1월 9천167원에서 9천722원으로 6.0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용 요금은 1만7천333원에서 1만8천111원으로 4.48% 올랐고 목욕은 8천원에서 8천444원으로 5.55% 상승했다. 이용(1만4천667원→1만4천778원)과 숙박(4만6천111원) 요금은 0.75%, 0%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5개 개인서비스 요금의 평균 상승률은 3.36%로 광주보다 높았다. /안태호 기자



돌봄 이웃 위한 '나눔의 손길' 지난 13일 광주 북구 두암동 무등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김장김치 나눔행사에 참석한 문인 북구청장과 자원봉사자들이 돌봄 이웃들에게 전달할 김치를 버무리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지역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성과 공유

광주경제일자리재단, 소상공인 역량강화·판로확대 기여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15일 "지난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일창업박람회"에서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나라라프로젝트'(사진)에 대한 성과공유회를 진행했다. 경제일자리재단은 소상공인과 뷰티산업 업체를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인 '그립'과 '네이버쇼핑라이브'를 통한 라이브방송을 소상공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먼저 한국에스엔에스인재개발원은 외식업, 반려동물 사업 등 15개 사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스스로 라이브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다. 라이브나우는 15개 사 뷰티업체를 대상으로 광주 뷰티 홍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11일과 12일 광주시청 광장에서 라이브방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창업박람회를 주관한 흥병렬 제일총은전람 대표는 "소상공인이 직접 라이브방송을 운영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좋은 사업에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어서 기뻐"라며 "기존 박람회에 새로운 콘텐츠를 담아나가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현성 경제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나라라프로젝트"는 소상공인 스스로 판로 확대의 역량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화된 소상공인이 다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타력'이 되는 선한 영향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슬 기자

"불가능한 도전 돌파 감명...최고 순간 오지 않았다"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 싱가포르 타운홀미팅서 임직원과 소통
"우리가 함께 이뤄내고 있는 혁신과 불가능한 도전들을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다. 지금까지의 여정은 훌륭했지만 진정한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현대자동차그룹 정희선 회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그룹의 대표 혁신 거점인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yundai Motor Group Innovation Center Singapore, 이하 HMGICS)'에서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 임직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심의를 미래 모빌리티를 연구하고 실증하는 테스트베드다. 특히 인공지능, IT,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인간 중심의 제조 시스템을 개발 및 실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제조 플랫폼은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비롯 국내외 EV 전용공장에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타운홀미팅은 HMGICS 전 직원들로부터 취합한 질문과 현장 즉석 질문들로 진행됐다. 정희선 회장은 "빠른 변화 속에서 HMGICS의 정확한 역할이 무엇이며, 현

대차그룹 비전과는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등 궁금해하는 사안들에 대해 솔직하게 소통하기 위해 타운홀미팅을 제안했다"며 "같은 목표를 향한 공감대를 만들고 미래를 향한 여정을 함께 하는 중요한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모든 질의가 끝난 후 정희선 회장은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를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인 HMGICS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를 혁신할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기술을 지속 탐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광주경총·상의 '2025년 신년인사회'

1월3일 김대중센터서 공동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는 15일 "광주상공회의소와 2025년 1월3일 오전 8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광주·전남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부 일정으로는 오전 7시50분부터 오전 9시 10분까지 떡국을 먹고 오전 8시30분에서 오전 9시까지 강기정 시장의 2025년 광주시정 운영방향 특강이 진행된다. 본행사는 장내 정리 및 참석자 인사 후 9시10분 개회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신년사와 주요 기관장과 정재계 인사의 신년 덕담, 건배 제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문의는 광주경총 경영지원팀(02-654-3425)으로 하면 된다. /임재만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가득한 무안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4,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무안군** 문의 : 062)650-2099